

夷域과 異域 사이*

— 『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글쓰기 맥락과 특징

金曉民**

<目 次>

1. 글머리
2. 재현 매체로서 '도경'이 놓인 맥락
3. 당위적 명분의 부각과 의례적 글쓰기
4. '다름'에의 주목과 박물학적 글쓰기
5. '고려'를 통한 '문명천하'의 재구성

1. 글머리

본고는 전통시기 '중국'이 '외국'을 어떻게 재현하고 담론화 해왔으며, 그것을 통해 '중국'¹⁾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왔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국'은 하나의 실체로서보다는 관념적으로 구성되고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온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로서 성격이 강했으며, 이는 주로 유가 경전을 비롯해 正史, 지리서, 견문록, 類書 등 글쓰기와 매체를 통해 지배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재생산되어 온 데 힘입은 바 크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구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27).

** 高麗大學校 世宗캠퍼스 中國學專攻 教授

1) 본고에서 '중국'은 근대적 국가 개념이나 현재 영토 기준의 국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장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현재의 정치적 실체로서 중국과는 다른 개념이기에 필요에 따라 따옴표를 써서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과거 '중국'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고려' 또한 객관적 역사적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따옴표를 표기하기로 한다.

적인 양상은 시대와 텍스트의 유형 등에 따라 변주를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기록은 서술자의 시각과 의도, 더 나아가 지식구조 또는 '무의식'에 의해 매개된 일종의 '기획'이자 '서사'로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들 가운데 전문 지역서라 할 만한 자료들에 국한해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대 중국 사신들이 남긴 使行錄이다. 중국의 한반도 지역 사행록은 송대에서 청대까지의 기록들 일부가 남아 있으나,²⁾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송대 徐兢(1091~1153)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은 우선 전통시기 한반도 지역에 관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존 중국 最古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온전히 남아 있는 자료로서는 시기적으로도 제일 앞설 뿐 아니라 한반도 지역에 대해 그 어느 자료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당시 '중국'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담론화 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요·금·서하 등 강대한 이민족 국가들에 둘러싸여 민족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³⁾ 북송 시기에 쓰여진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국'의 異域/夷域 관념 및 그 재현 양상을 엿보기에도 매우 적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여타 사행록에 비해 선행연구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역사학이나 미술사학 분야 등에서 『고려도경』을 하나의 사료로 접근하여 다뤄왔으며, 그러다 보니 『고려도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보다는 그 안에 기술된 특정 정보들에 집중해 고려의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온 경향이 강하며, 글쓰기나 텍스트 자체의 특성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⁴⁾ 더욱이 자료의 대표성이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2) 중국의 한반도 사행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료는 2003년에 北京圖書館出版社에서 총 18종을 수록하여 간행한 『中朝關係史料叢刊—使朝鮮錄』이며, 이는 김한규의 역작 『사조선록 역주(1-5)』(소명출판, 2012)로 완역 소개된 바 있다.

3) 葛兆光 저, 이원석 역, 『이 중국에 거하라: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구』(글항아리, 2013) 제1장 참고.

4) 『고려도경』은 현재 국내에서만 3종의 역주본과 관련 논문 수십 편이 나와 있다.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한문학의 시각에서 접근한 김보경의 「『고려도경』과 고려의 문화적 형상」(『한국한문학연구』 제47

중문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도경』이 생산된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 글쓰기에 드러나는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에 주목하여 일종의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송말 '중국'이 고려를 어떻게 재현하고 배치했으며, 그럼으로써 '중국', 나아가 소위 중국적 천하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유지하고자 했는지를 고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고려도경』, 나아가 중국 사신들의 사행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접근 시각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현 매체로서 '도경'이 놓인 맥락

『고려도경』은 고려 仁宗 원년(1123) 6월 宋의 國信使 일행이 徽宗의 조서를 전하고 1년 전에 흥거한 睿宗에 대한 조위의 뜻을 표하는 임무를 띠고 바닷길을 통해 개경에 다녀간 3개월간의 견문을 기록한 책으로, 提轄人船禮物官으로 사행에 참여했던 서궁이 편찬하였다.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며 특히 書畫에 뛰어나 휘종의 눈에 들었던 서궁은 고려 사행의 과정과 견문을 기존 자료들을 참고하는 가운데 그림과 함께 소상히 기록하여 40권(28門 300目)에 달하는 편폭으로 이 책을 완성하였다. 진사 출신이 아님에도 그가 사행의 중요한 일원으로 선발된 것은 문장과 서화에 뛰어난 그의 재능 덕분이었다. 그는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약 1년 만인 宣和 6년(1124) 8월 6일 휘종에게 『고려도경』을 바쳤다. 『고려도경』을 본 휘종은 크게 기뻐하여 서궁에게 同進士出身의 자격을 내리고 知大宗正丞事로 발탁하면서 掌書學까지 겸임하도록 할 만큼 그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고려도경』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텍스트였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고 중요한 자료였다. 『고려도경』 외에 중국의 한반도 지역 현존 사행록 가운데 글과 그림이 함께 수록된 예는 청대 阿克敦(1685~1756)의 『奉使圖』가 유일하다. 다만, 『봉사도』의 경우 그림이 남아 있

집, 2011)의 통찰이 돋보인다. 본고는 이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는 가운데 진일보한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는 유일한 사행록이라는 점에서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그 편폭이나 수록 내용의 풍부함 면에서는 『고려도경』에 크게 못 미친다.

여기서 서궁이 소위 ‘圖經’이라는 형태의 텍스트를 만들게 된 배경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당대에 그림에 특히 뛰어났던 인물이라는 점이 큰 원인이었음은 물론이지만,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시대적 배경 또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궁이 중국에서 외국으로 파견된 사신들의 필수적인 임무가 견문 보고서의 작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⁵⁾

“신이 듣기에 천자는 정월 초하루에 큰 조회가 끝난 후 천하의 圖籍을 뜰에 펼쳐놓는다. 이를 통해 만국에서 모여든 왕·공·후·백을 모두 살피게 된다. 그러므로 담당 관리가 보관하는 것은 유별나게 엄격하며 사신의 직분은 이것(도적의 수집)을 급선무로 여긴다.”⁶⁾

인용문은 『고려도경』 저자 서문의 첫머리이다. 서두에서부터 견문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서문 중간 부분에서도 “輜軒을 타고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圖籍 작성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⁷⁾며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실상 서문 전체가 시종 이러한 취지로 일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圖籍’이란 본래 해당 지역의 지형을 그린 지도와 호구 수를 표시한 서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들을 통해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고고히 팔짱을 끼고 지내는 존귀한 천자가 멀리 만 리 밖 사방을 손바닥 위에서 가리키듯이 환히 살피는 것이다”⁸⁾라는 언급이나, “이제 신이 쓴 ‘도경’을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훑으면 먼 異域의 일이 모두 눈앞에 모여 있으니”⁹⁾라고 자신한 서

5) 조동원 등 옮김, 『고려도경』 「해제」(황소자리, 2013) 20쪽.

6) “臣聞天子元正大朝會畢，列四海圖籍于庭。而王公侯伯萬國輻湊，此皆有以揆之。故有司所藏嚴愷特甚，而使者之職，尤以是爲急。” 조동원, 같은 책 「서문」, 40쪽. 본고에서 『고려도경』 원문에 대한 번역은 기본적으로 조동원 등의 역주본을 따른다.

7) “乘輜軒，而使邦國者，其於圖籍，固所先務。” 조동원, 같은 책, 42쪽.

8) “此所以一人之尊，深居高拱於九重，而察四方萬里之遠，如指諸掌。” 조동원, 같은 책, 41쪽.

9) “今臣所著圖經，手披目覽，而遐陬異域，舉萃於前。” 조동원, 같은 책, 44쪽.

문의 문맥으로 볼 때, 주나라 이후 천하의 형세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장해온 '도적'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저술 의도가 자못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북송 시기에 실제로 조정에서 정기적으로 각 지역별로 지도와 지역의 중요 정보를 수집, 정리한 소위 '圖經'을 비치도록 하여 이를 모아 전국성의 지방지라 할 수 있는 總志를 수찬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도 지적할 만하다. 이처럼 조정에서 주관하는 중앙 주도의 지방지 편찬은 수당대부터 시행되어왔지만, 북송 시기, 특히 그 초기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開寶諸道圖經』, 『祥符州縣圖經』 등 상당수 도경이 이 시기에 편찬되었다. 남송 시기 鄭樵가 편찬한 『通志』 「藝文略」 중 史類 地理目에는 '圖經'이라는 하위 범주를 따로 두어 18路的 지방지를 저록하고 있기도 하다.¹⁰⁾ 물론 북송까지의 이 같은 중앙 주도의 지방지는 저작으로서 성격보다는 지역별 정보와 지도를 모은 관찬 문서집에 가까운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경'이 북송 중후기 이후로는 중앙 주도가 아닌 각 지역 지방관 또는 지역 지식인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체적인 지방지 편찬으로 전환되고 문인들의 저술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에는 당시 '중국'의 판도가 크게 축소되었던 시대적 상황이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이후에도 상당수의 지방지는 여전히 '도경'이라는 명칭이나 체계를 답습하기도 하였다.¹¹⁾ 여하튼 중국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경'이 남송 이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별 지방지의 원류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송대의 지방지는 내용상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지리, 문화 등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여 백과사전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러한 성격은 북송 중후기에서 남송 시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농후해졌다.¹²⁾

북송말에 쓰여진 『고려도경』에서 '圖'는 지도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림 위주였던 것으로 보이지만,¹³⁾ 일종의 지방지로서 '도경'과 일정한 연원 또는 친연

10) 鄭樵, 『通志』 卷66 「藝文四」, 中華書局 重印本 第1冊, 2016, 志782쪽 참고.

11) 이상 북송 지방지에 관해서는 黃燕生, 「宋代的方志」(『史學史研究』, 1984年 第2期) 제1, 2절 및 潘晟, 「宋代地理學的觀念, 體系與知識興趣」(北京大學城市與環境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6) I쪽, 262쪽 등 참고.

12) 潘晟, 같은 글, 18쪽 참고.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궁의 서문 전반부에서는 『周禮』에서 職方氏, 行人, 司徒, 外史 등의 관원이 천하의 '圖書'를 관장하거나 사방의 실정을 보고하고 기록하는 역할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들면서 왕이 천하의 정세를 두루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례들이 전통시기 이래 지방지의 원류로 인식되어왔다는 점¹⁴⁾도 지적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도 서궁이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의 보고서를 (조정에 바치는) 일종의 지방지 성격의 텍스트로 인식한 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고려도경』은 門目的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제 역시 송대 지방지의 대표적인 체제 가운데 하나임은 물론이거니와 전통적인 圖經의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친연성이 거듭 발견된다.¹⁵⁾

여기에 덧붙여 북송의 무관 趙珣이 쓴 『聚米圖經』(5卷, 1041)의 사례를 언급할 만하다. 『취미도경』은 '도경'이란 이름을 붙인 송대의 '외국' 관련 기록으로서 『고려도경』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로 꼽힌다. 조순이 북송의 장수였던 부친 趙振을 따르면서 西夏 경내의 산천, 취락, 里程 등 중요 군사지리 정보를 모아 기록한 책이다. 당시 이를 알게 된 仁宗 황제는 그 책을 구해오게 하고 조순을 불러 친견했는데, 조순은 이때 군사 저작인 『五陳圖』, 『兵事』 10여 편도 함께 바쳤고, 결국 그 공로로 閣門通事舍人 겸 陝西經略按撫招討都監으로 발탁되기도 한다. 『취미도경』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기록들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만 전해지지만, 당시 송의 입장에서 서하와의 긴장된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¹⁶⁾ 『취미도경』은 군사적 시각에서 쓴 것이기는 하지

13) 卷34 「海道一」에서 “이제 삼가 神舟가 경과한 島洲와 苦嶼를 차례대로 그린다. (謹列夫神舟, 所經島洲苦嶼, 而爲之圖.)” (조동원, 같은 책, 409쪽)는 언급을 보면 지도에 해당하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림의 주요 내용은 지도보다는 사물이나 인물 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14) 黃燕生, 같은 글, 40쪽 참고.

15) 黃燕生, 같은 글, 38쪽 참고.

이와 관련하여, 서궁이 『고려도경』 편찬에 실제로 참고했던 宋 王雲의 『雞林志』(30권), 그리고 남송 趙拱의 『蒙韃備錄』 등의 사행록도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역시 門目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다. 王皓, 「宋代外交行記與語錄研究」(四川師範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4.) 222쪽 참고. 門目 분류 체계에 관해서는 뒤에서 접근 시각을 다소 달리하여 좀 더 부연하기로 하겠다.

만, '외국' 지역에 대한 정보를 '도경'이란 이름과 형태로 기록하여 조정에 바쳐졌다는 점에서 지방지로서 '도경'과 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서궁이 서문에서 “이제 신이 쓴 『고려도경』을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훑으면 먼 이역의 일이 모두 눈앞에 모여 있으니 옛 聚米의 遺制를 본받은 것이다.”¹⁷⁾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聚米의 遺制란 東漢 시기 光武帝 劉秀가 西征에 나서 지금의 甘肅省 天水 일대에 진출했을 때 대장 馬援이 황제 앞에서 쌀을 모아 지형도를 만들어서 군대의 이동 경로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이로 인해 '聚米'는 전통시기 중국에서 지형도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다. 조순의 『취미도경』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계승해 쓴 것인데, 『고려도경』의 경우 군사적 시각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¹⁸⁾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비유적 언급을 통해 고려의 지역 정보를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황제에게 바침으로써 송의 대 고려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랐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취미도경』이라는 선례가 『고려도경』의 命名이나 찬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송대에 사행 기록의 수량이나 종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송대에 찬술된 각종 외국행 기록은 현재 확인되는 것만 36종에 달하고, 국내 行役記 역시 24종에 달할 만큼 큰 발전 양상을 보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행기록이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송대 외국 사행 기록의 흥성인데, 그 주요 원인은 안사의 난 이후 북방 이민족 세력이 강대해진 반면 중원 국가는 쇠약해진 데 있었다. 북송 시기에는 그 정도가 더 심각했다. 북송은 요, 서하, 금 등 서북방의 강성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채 이전과는 판연히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수세적으로 그들과 빈

16) 潘晟, 같은 글, 78-80쪽 참고.

17) “今臣所著 圖經, 手披目覽, 而遐陬異域, 舉萃於前, 蓋倣古聚米之遺制也.” 조동원, 같은 책, 44쪽.

18) 배규범은 「徐兢의 高麗圖經 刊行과 내용상 특징」(『東方文學比較研究』 第6集, 2016)에서 『고려도경』의 내용상 특징들 가운데 군사적 측면에서의 “探敵 행위로 보이는 묘사”를 첫째 요소로 꼽은 바 있다. 73-76쪽 참고.

번한 외교적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 대한 각종 명목의 사절 파견은 국가 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언변과 문장 등이 두루 출중한 관료를 선발해 파견하게 되었고, 이들이 직분을 수행하며 出使行程錄을 찬술해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송대의 많은 출사행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지어진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은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¹⁹⁾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夢溪筆談』의 저자이자 북송의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던 沈括(1031~1095)이 遼와의 접경지대에 사신으로 다녀와 남긴 『熙寧使虜圖抄』(2卷, 1075)이다. 『사로도초』 역시 '圖抄'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사행 과정에서 수집한 요의 지리 및 風土人情 등 지역 정보를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 神宗 황제에게 바쳐져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宋史』 卷331 「沈括傳」에 따르면 심괄은 조정에 바쳤던 이 사행록을 이후의 사신들을 위해 다시 별도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으며, 후에 그의 조카 沈邁가 편찬한 문집 『西溪集』에 수록됨으로써 세상에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宋史』 卷349 「宋球傳」에 의하면, 宋球가 1083년 고려에 두 번째로 사행을 나가서 산천의 형세나 풍속 등을 비밀리에 살피고 돌아와 '그림과 함께 기록하여(圖紀)' 조정에 바치자 神宗이 호평하고 通事舍人을 除授한 선례도 있었다.²⁰⁾ 직접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으나, 이 같은 선례들도 서궁의 『고려도경』 편찬, 특히 '도경'이라는 형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일반적인 사행록은 사행의 여정에 따른 일기 형태의 보고서나 상대국 인물들과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어록 형태가 주종을 이뤘고 그림과 함께 수록한 '도경' 형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고려도경』은 이상과 같은 시대적, 문화적 자장과 맥락 가운데서 쓰여진 것이자 송대 외국 사행록 가운데 가장 긴 편목을 지닌 대표적인 텍스트로서²¹⁾,

19) 陳大遠, 「宋代出使文學研究」(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14. 6) 133쪽 참고.

20) 각각 『宋史』 卷331 「沈括傳」, 卷349 「宋球傳」, 中華書局, 1997. 2718, 2821쪽 및 王皓, 같은 글, 44-45, 114, 119쪽 참고. 이밖에 畢仲衍(1040-1082)과 張叔夜(1065~1127) 역시 각기 遼에 사행을 다녀와 그림과 문장을 함께 수록한 사행록을 지어 바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역시 '외국' 사행 기록을 '도경'의 형태로 편찬한 또 다른 선례들이라 할 수 있다. 王皓, 같은 글, 119쪽 참고.

21) 王皓, 「關於『宣和奉使高麗圖經』創作的幾個問題」(『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9卷 第1期, 2012. 1) 135쪽 참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행록이라기보다는 조정에 바치기 위해 편찬된 일종의 '지방지' 성격의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3. 당위적 전제의 부각과 의례적 글쓰기

『고려도경』을 읽어보면 상당한 편폭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존재감이 더 인상에 남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의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글쓰기에 있어서 내용의 선택이나 배치, 서술 패턴, 더 근본적으로는 글쓰기의 기저에 깔린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필자는 『고려도경』이 일종의 지방지로서 성격을 지닌, 조정, 특히 황제에게 바쳐진 復命 보고서였음을 지적하였다. 『고려도경』은 서궁이 사행을 다녀온 이후 황제의 명을 받고 편찬하여 이듬해에 직접 바친 보고서라는 점이 그 텍스트의 성격과 글쓰기 특징을 기본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지식인의 개인적 견문록이 아닌, 공식적인 사행 임무의 결과물로서 철저하게 황제를 의식하고 보이기 위해 쓴 책임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용의 배치나 서술 패턴 등의 특징도 우선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려도경』에서 각 권의 첫머리는 대개 "신이 듣기에(臣聞)"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벌써 철저하게 황제를 의식하고 직접 보고하는 태도로 글을 썼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김보경은 『고려도경』이 실제와 사실보다는 華夷觀이라는 대주제에 의해 철두철미하게 조직되어 있는 이념과 비전의 서술을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²²⁾ 이러한 평가는 『고려도경』의 핵심적 특징을 잘 짚어주고 있는데, 텍스트의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글쓰기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할 터이다.

황제를 의식한 또는 황제를 위한 글쓰기는 '천자'를 정점으로 한 大一統의 위계적 천하질서의 이상을 부각시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22) 김보경, 같은 글 참고.

여 『고려도경』 각 門의 서론 성 서두 부분에서 저지는 종종 四夷/夷狄/蠻夷 등의 蔑稱으로 표현되는 주변 이민족의 ‘중화’에 못 미치는 ‘저열한’ 특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화이관을 전제로 내세우는 일종의 패턴적 글쓰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이 듣기에 四夷의 군장들은 山谷에 의지하다가 水草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수시로 옮겨 다니는 것을 편리하며 적절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애초부터 國邑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하지만 고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권3 「城邑」 서두)²³⁾

“신이 듣기에 오랑캐 나라에서는 이마에 그림을 새기고 양반다리를 하거나 머리를 풀고 문신을 하며 짐승처럼 살고 노닌다 하니, 어찌 제대로 관아를 세우고 관리를 두는 법을 알겠는가? 고려만은 그렇지 않다.” (권21 「皂隸」 서두)²⁴⁾

이러한 대목들은 대체로 『禮記』, 『詩經』, 『後漢書』, 『三國志』 등 기존 經史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인용한 권21 「皂隸」 서두의 경우 『예기』 「王制」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서술한 것이다. 기존 전적의 내용을 답습하면서 그 권위에 기대어 중화의 문명을 절대적 가치 준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적 가치를 당위적 전제로 내세움으로써 이하 고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동일성’과 타자화의 틀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위 四夷 가운데 유독 고려 또는 東夷는 다른 오랑캐들에 비해 중화에 가까움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적 천하질서를 구성하는 바람직한 본보기로 미화하는 것도 하나의 두드러진 서술 패턴을 이룬다. 위계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중국적 천하질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있어 고려가 그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해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별 門에서의 서술 구도뿐 아니라 텍스트 전체의 틀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고려도경』 권1 「建國」과 마지막 부분인 권40 「同文」에서는 ‘중화’의 우

23) “臣聞, 四夷之君類, 多依山谷, 就水草, 隨時遷徙, 以爲便適, 固未嘗知有國邑之制. ……若高麗則不然…….” 조동원, 같은 책, 70쪽.

24) “臣聞, 諸蠻之國, 雕題交趾, 被髮文身, 豺狼與居, 麋鹿與游, 豈復知張官置吏之法哉? 唯高麗則不然.” 조동원, 같은 책, 266쪽.

월성과 그 영향력을 심분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건국」에서는 箕子를 고려의 선조로 내세우는가 하면 ‘중국’적 천하질서와 관련된 한반도의 역사에서 箕子 조선의 출발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⁵⁾ 「동문」에서는 正朔, 儒學, 樂律, 度量權衡 등 4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송의 그것을 자발적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텍스트의 처음과 끝에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고려를 철저하게 중화의 테두리 안에 놓고 재현하고자 한 태도가 수미일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보경은 이러한 서술 구도 자체에 화이 관념이 구현되어 있고, 특히 「동문」의 배치를 통해 세계의 중심, 문명의 표준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통의 세계를 결론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²⁶⁾

소위 대일통의 중국적 천하질서는 매 조대와 시기마다 그 시점의 버전으로 거듭 고쳐 쓰는 가운데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할 터인데, 『고려도경』은 이러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텍스트 곳곳에 보이는 當代 황제 휘종과 송에 대한 칭송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황제가 왕위를 이어받아 선대를 추모하여 효성을 이루고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사해의 안팎에서 그의 신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덕이 천하에 덮이고 은혜가 사해에까지 퍼졌다.” (권2 「世次」 ‘王氏’ 부분)²⁷⁾

“우리 송이 천하를 차지한 지가 200년이 되었는데 전쟁은 사그러들었

25) 한편,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백제나 신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 실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고,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 실패에 대해서는 서술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서술 경향에는 기자조선으로부터 (위만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를 단순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을 최대한 단선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가 깔려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唐代 杜佑의 『通典』 「邊防」이나 북송 초 樂史의 『太平實字記』 「四夷」 등 기존 주요 자료의 한반도 역사 관련 대목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渤海의 존재를 『고려도경』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는데(이에 관해서는 김효민, 「太平한 中華의 세계를 꿈꾸다 — 『太平實字記』의 四夷 敘事와 담론에 대한 試論」,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3집, 2018. 24-25쪽 참고), 이는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왕조의 계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부득이 포함된 것인 듯하다.

26) 김보경, 같은 글, 286쪽 참고.

27) “皇帝嗣位, 遙追來孝, 丕承先烈. 薄海內外, 無不臣妾, 德被藩服, 恩行海隅.” 조동원, 같은 책, 65쪽.

고 오랑캐 군장은 천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믿고 따르는 정성이
 금석처럼 견고하였다. 容成氏 이래로 이처럼 태평한 시대가 꽃피운 적은
 없었다. 제후가 왕인을 높여서 의례가 세밀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권24
 「節仗」 서두)²⁸⁾

강성한 이민족 국가에 둘러싸여 위축되고 불과 2년 후 북송이 멸망하고 마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적 현실은 이 같은 레토릭에 의해 엄폐된 채 텍스트 속에서
 상상의 질서만이 전경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송 황제와 지배계층이 회구했을
 이상이 그저 수사로서 되풀이되고 있는 지점들인데, 이러한 대목들 역시 황제를
 위한 의례적 글쓰기로서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²⁹⁾

이 같은 글쓰기 맥락에서 저자의 개인적인 감상이나 감회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서궁이 사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적어두었을 애초의 기록들
 에는 그러한 요소들도 없지 않았을 테지만, 보고서로 다시 재구성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은 최대한 배제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고려와의 원활하지 않
 았던 국제관계, 또 행동 범위가 매우 제한된³⁰⁾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의
 사행이었던 까닭도 있었겠으나, 후대의 사행록에서 그 흔한 唱和詩 한 수 수록되
 어 있지 않은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고려도경』에는 서궁 개인
 의 감상이나 감회는 매우 절제되어 있어 그 문체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양상을 보
 이는데, 이 역시 독자를 의식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궁은 황제 외에
 이후의 사신들에게 참고로 제공될 것도 고려했음을 밝힌 바 있으며³¹⁾, 이로써

28) “恭惟宋有天下，垂二百年，干戈浸偃，夷裔君長，不待詔告，而信順之誠，堅若金石，蓋自容成氏以來，未有太平如此之盛。” 조동원, 같은 책, 299쪽.

29) 『고려도경』의 후반부는 사실상 사절단과 관련된 의례 및 사행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국 간의 위계적 질서가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다. 가령 황제의 조서나 제문 등이 그대로 수록되고 있다든지, 그와 관련된 성대하고 엄격한 의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및 서술 역시 의례적 글쓰기로서 성격을 더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0) 서궁은 서문에서 “(고려에서) 객관을 제공한 다음에는 군사가 지키므로 객관을 나선 게 대 여섯 번에 불과하였다. (授館之後，則守以兵衛，凡出館不過五六.)” (조동원, 같은 책, 44쪽) 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송 사절단의 행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31) 권39 「海道六」에서 “……이제 이 점을 서술하여 뒤에 오는 이들을 격려하는 바다. (今敘此以

『고려도경』이 당시 관료 사대부 등 지배계층을 의식하는 가운데 편찬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사행의 견문 등을 재구성하고 다듬은 결과물이 다 보니 글쓰기에 있어서도 ‘개인’으로서 관점보다는 소위 ‘천조대국’으로서 북송 지배계층의 지향과 가치 기준이 강하게 개입된 글쓰기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가치평가가 종종 눈에 띈다. 그러나 상술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저자 개인적 차원의 것이기보다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가치평가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술자의 가치 평가는 주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중국’과 비교하는 지점들에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하며, 중국을 높이고 고려의 문물을 비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령 권14 「旗幟」 부분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국서를 가지고 가는 使行의 정사와 부사가 舊禮에 의하여 번쩍 번쩍 빛이 나는 錦繡로 된 기 40面을 주었다. 조서가 처음 입성할 때 舟人을 시켜 들고 선도하게 하였는데, 들판에 찬란하게 비치니 고려 사람들이 놀라 구경하면서 자못 스스로 그 비루한 것을 부끄러워하였다.”³²⁾

고려의 旗幟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송의 화려한 깃발을 대비시키면서 문물의 우열에 대한 관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동질적이고 ‘모범적인’ 면을 기본적으로 긍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면면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타자화 하는 태도를 드러내곤 하는 것이며, 그 기저에는 송 지배계층의 차별적인 화이관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도 『고려도경』의 글쓰기는 私撰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의례성이 강한 ‘公的’ 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만하다.

한편 위와 같은 지점들에서 레토릭이 구사된다든지 글쓰기 양상이 달라지곤 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권17 「祠宇」 중 靖國安和寺에 대한 서술

爲後來者之勸.)” (조동원, 같은 책, 461쪽)라고 하고 있어, 이후의 사신들도 독자로 염두에 두고 썼음을 엿볼 수 있다.

32) “初國信使副, 依舊例給, 錦繡間錯轉光, 旗四十面, 詔書初入城, 令舟人, 執而前導, 輝映郊野, 麗人駭觀, 頗自愧其陋焉.” 조동원, 같은 책, 193-194쪽.

은 그대로 한 편의 훌륭한 기행문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이 같은 대목은 텍스트 전체를 놓고 볼 때 자못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 같은 예외적인 서술 양상을 보이는 데는 안화사가 휘종의 친필이 있는 곳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인 황제를 높이려는 마음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유난히 상세하면서도 문학적 색채가 짙은 글쓰기 형태를 취하는 방식으로 외화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권6 「宮殿二」에 고려 관료가 쓴 「清燕閣記」(金緣, 1117년) 전문이 수록된 것도 예외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또한 안화사의 경우와 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청연각기」는 송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의 왕과 관료들이 스스로 중화를 높이고 흠모하며 그 문물과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과 더불어 특히 송 황제의 은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예외적으로 글 전체를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랑캐'인 고려인 스스로가 저토록 교화되어 있고 송을 우러러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거라는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런 것이야말로 당시 송 황제와 지배계층이 보고 싶어 하고 흡족해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었을 터이다. 여하튼 「청연각기」는 안화사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건조한 서술 특징을 보이는 『고려도경』에서 서술의 균형을 깨며 삽입되어 있는 인상이 짙는데, 이런 면에서 당위적 명분의 부각과 황제를 위한 글쓰기의 특징이 재차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서궁 일행의 고려 사행은 단순히 의례적인 사행 이상의 중요성을 띤 것이었다. 당시는 이미 상당기간 고려와 요 사이의 책봉-조공 관계가 지속되면서 송과 고려 간의 책봉-조공 관계는 단절된 상황이었다. 송은 요가 패망하고 금이 건국한 상황을 틈타 고려와의 조공-책봉 관계를 복원하여 금과 더불어 요를 제압하려는 열망이 컸으며, 이를 위해 휘종은 책봉-조공 관계 단절 후 격하해왔던 고려에 대한 예우 등급을 파격적으로 격상하는 등 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궁 일행의 사행은 바로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 국왕 흥거에 대한 조위와 더불어 고려와의 책봉-조공 관계 회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³³⁾ 결국 고

33) 조동원, 같은 책, 「해제」 32-35쪽 및 김한규, 「『선화봉사고려도경』 해제」(『사조선록역주

려는 송의 그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는 하지만, 그런 형편이었던 만큼 서궁 일행의 사행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했고 사절의 언행, 행동반경 등에도 더 제약이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들 역시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서궁의 글쓰기 형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황제의 명을 받은 사절로서 황제의 적극적인 의지에 부응하고자 한 서궁 개인의 사명감과 충성심 등이 결합되면서 공적 서사로서 글쓰기 특징이 더 강화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송대에는 엄중한 국제 정세로 인해 사신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사행록을 기록해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³⁴⁾ 다른 한편으로 서궁이 이후의 사신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했음을 밝힌 점과 관련해서 심괄의 『사로도초』의 경우처럼 향후 출판 등을 통한 전파까지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그 글쓰기는 더욱 공적 서사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도경』에서 서술자 개인의 감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고려도경』 후반부에 수록된 「海道」 부분(권34-권39)에서는 다른 부분에서와는 달리 개인적 감상이나 감회라 할 만한 요소들이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³⁵⁾ 이는 바닷길이라는 거친 자

1』, 소명출판, 2012.) 41-46쪽 참고.

34) 王皓, 「關於『宣和奉使高麗圖經』創作的幾個問題」, 132쪽 참고.

35) 이런 점에서 「海道」 부분은 서궁 1인만의 글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王皓는 송대 일부 다른 기록들에서 소위 『高麗錄』이 서궁 1인이 아닌 서궁 등이 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고려도경』의 일부, 적어도 「海道」 부분은 당시 副使 傅墨卿이 참여해 쓴 것으로 보았다. 또 「海道」 부분은 이들 사절이 귀환 직후 조정에서 보고서로 바쳤던 내용이자 이후 별도로 세상에 전해진 텍스트일 수 있으며, 서궁이 이를 다시 가공하여 『고려도경』에 수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명대에 편찬된 『說郛』나 『廣百川學海乙集』에 「海道」 부분만 수록한 서궁의 『使高麗錄』이 수록돼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런 면에서 『고려도경』은 서궁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당시 사행 구성원들의 집체편찬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송대 외교 사행록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 집체편찬의 성격을 띤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했던 정황이 감지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王皓, 「關於『宣和奉使高麗圖經』創作的幾個問題」 참고.)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고려도경』 「海道」 부분에 서술자의 감회를 드러낸 대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어쩌면 서궁 1인이 쓴 것이 아닌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과 험난한 여정에 대한 실질적 체험과 인상이 이를 처음 겪는 지식인으로서 매우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도」 부분의 서두에서 바다와 관련한 의론이 유난히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는 점도 서술의 균형상 다른 부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분명한 한계를 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깊은 인상이 '외국'과의 현실적 거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다름'에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논하기로 한다.

4. '다름'에의 주목과 박물학적 글쓰기

『고려도경』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서술자가 소위 '중국'과 '고려'의 '다름'에 주목한다는 취지를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술자가 생각하는 '다름'이란 어떤 성격과 맥락을 지니는 것인지, 또 그러한 '다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필자는 『고려도경』의 글쓰기가 동일성과 타자화의 틀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구도에서 과연 다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까닭이다.

우선 '다름'에 주목하고자 한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서문에서부터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삼가 이목이 닿는 대로 여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中國과 같은 것들은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취하는(取其異) 것이다.”³⁶⁾

서문에서는 뒤이어 이렇게 편찬된 『고려도경』에는 '異域'의 일이 모두 눈앞에 모여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권40 「동문」 서두의 다음과 같은 대목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6) “謹因耳目所及，博采衆說，簡去其同於中國者，而取其異焉。” 조동원, 같은 책, 43쪽.

“그리고 쓰는 행위는 다른 나라[異國]의 독특한 제도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제도가 같다면 그림 그리는 것을 어찌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겠는가. 삼가 고려의 정삭·유학·음악·도량형 가운데 中國과 같은 것을 조목으로 잡아 同文記를 작성하고 그 그림은 생략하기로 한다.”³⁷⁾

그 결과물이 어떻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고려를 ‘중국’과 구별되고 상대되는 ‘이국’으로 인식하고 대하고자 했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두 인 용문에서 모두 그 다름을 구분하는 기준 범위로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쓴 점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실제로 이밖에도 본문 가운데 ‘중국’이라는 명칭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본문 가운데 중국 스스로를 가리켜 ‘外國’(권24 「節仗」의 ‘次宣武下節’ 부분)이라고 한다든지 고려를 ‘異邦’(권18 「道教」 ‘釋氏’ 부분)이나 ‘彼國’(권24 「節仗」 ‘次宣武下節’ 및 권40 「동문」 ‘儒學’ 부분)이라고 지칭한 경우도 눈에 띄는데, 이러한 어휘의 사용 역시 이상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해도2」 부분에서는 중국과 한반도 사이 해역에 위치한 夾界山을 일종의 國界로 언급하고 있는데³⁸⁾, 이로써 ‘중국’과 ‘이국’ 사이가 부정확하고 상상으로 구성된 모호한 심상지리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지닌 관 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서술자는 중국과 고려 사이를 “큰 바다 너머 멀리 있다”³⁹⁾고 강조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고려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천하’를 위계적으로 구획해온 “九服의 땅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데⁴⁰⁾, 이런 지점도 서술자가 소위 ‘다름’에 주목하고자 한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피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異域’ 또는 ‘외국’으로 인식하는 듯한 이 같은 요소

37) “且圖志之作，所以紀異國之殊制，若其制或同，則丹青之作，何事乎贅疣。謹條其正朔儒學樂律度量之同乎中國者，作同文記，而省其繪畫云。” 조동원, 같은 책, 466쪽.

38) “정동 쪽으로 병풍 같은 산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협계산이다. 중국과 오랑개는 이 산으로 경계를 삼는다. (正東望一山如屏，卽夾界山也。華夷，以此爲界限.)” 조동원, 같은 책, 429쪽.

39) “邈在大海之外.” 조동원, 같은 책, 469쪽.

40) “不在九服之內.” 조동원, 같은 책, 465쪽.

들은 분명 당시 송이 처한 국제적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¹⁾ 『고려도경』에서 고려뿐 아니라 요(거란)와 금에 대한 언급도 이따금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 北虜와 같은 멸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大遼, 大金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권2 「世次」나 권40 「동문」에서는 고려가 거란을 섬기며 송에 조공하지 않은 ‘불편한’ 역사적 사실을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조정에서 고려를 보자면 저토록 멀지만, 거란에서 고려를 보자면 이처럼 가깝다.”⁴²⁾라고 하면서 당시 현실 속의 국제적 역관계와 더불어 ‘외국’에 대한 실제적이면서 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 송대에 들어서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일종의 제국성 대신 분명한 피아 차이를 내재하는 ‘중국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데,⁴³⁾ 그러한 면모가 『고려도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고려도경』에서는 ‘고려’에 대해 蠻夷나 夷狄, 島夷, 東夷 등의 멸칭도 적잖게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위와 같이 ‘夷域’이 아닌 ‘異域’ 또는 ‘외국’으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고려도경』은 전통적인 천하관 및 화이관에 당대의 현실적 인식이 습합되면서 고려에 대해 중국적 천하 질서의 일부인 오랑캐 지역, 동시에 ‘중국’과 구별되는 상대적 존재인 ‘외국’으로서의 중첩되고 모호한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첩되고 모호한 관념은 『고려도경』의 세부 서술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도경』의 서술자에게는 화이관에 입각한 위계적 인식이 선행했고, 서술자의 시각은 ‘고려’에 대한 상대적인, 또는 진정한 교류자의 그것이기 보다는 시종 우위에 선 俯瞰者 또는 정탐자의 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문물에 대해 종종 가소롭고 열등하다는 가치평가를 개입시킴으로써 중화의 우월감을 드러내곤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다름’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위계와 우열을 확인하고 강조

41) 북송 지배계층의 이 같은 인식에 관해서는 葛兆光, 『歷史中國的內與外』(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17) 3장 제1절 참고.

42) “本朝之於高麗, 如彼之遠, 北虜之於高麗, 如此其近.” 조동원, 같은 책, 471쪽.

43) 최수경, 「物の 세계: 南宋 지리서가 구성한 ‘海外’와 그 의미」(『중국어문논총』 제87집, 2018) 132-133쪽 참고.

하려는 심리에 크게 제약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름'에 대한 주목은 미세하고 제한적이거나 상대적 인식이라 할 만한 요소들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22 「雜俗」 서두에 서는 『예기』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이 듣기에 (『예기』의) 「王制」 편에 ‘넓은 골짜기와 큰 개천에 따라 여건은 달라지고(異制),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풍속을 달리 한다’고 한다. 넓은 골짜기와 큰 개천이 반드시 먼 지방이나 동떨어진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중국으로만 한정해보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습속이 각기 달라지니 다 같을 수는 없다. 하물며 (고려는) 오랑개의 지역으로 바다 밖에 있으니, 그 풍속이 한 가지일 수 있겠는가?”⁴⁴⁾

물론 뒤이어 ‘고려’가 문물이 발달하고 예의바른 나라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난잡스러운 오랑개의 풍속을 끝내 다 고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여전히 ‘다름’을 ‘틀림’으로 차별하는 위계적 화이관을 끝내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별 문화의 차이가 본디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해서 권23 「잡속2」 ‘濼濯’ 부분에서는 “옛 史書에 따르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⁴⁵⁾고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고려인의 청결함과 중국인의 불결함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지점인데, 중요한 것은 중국인에 대한 고려인의 일반적인 인식이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인의 입장에서 수치일 수 있는 측면을 고려인들의 말을 인용해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거기에 더해 고려인의 비웃는 태도까지 언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서술자의 반론은 보이지 않는다. 이 대목에 이어 고려인들이 남녀가 구별 없이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괴상히 여기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44) “臣聞, 「王制」曰, ‘廣谷大川異制, 民生其間異俗.’ 夫所謂廣谷大川, 固未必遐方絕域. 蓋特其中國之地, 川俗或殊, 則習俗各異, 有不可得而同者. 又況蠻夷之限在海外, 其習俗, 豈一端哉?” 조동원, 같은 책, 275-276쪽.

45) “舊史載, 高麗其俗皆潔淨, 至今猶然. 每笑中國人多垢膩.” 조동원, 같은 책, 287쪽.

덧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천조대국의 치부라 할 만한 측면이 고려인의 시각을 통해 이미 드러난 것을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한다. 일례에 불과하지만, '다름'에 주목하고자 한 서술자의 문화상대주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라 할 터이다.

한편 권3 「城邑」 서두에서는 “그 국경에 들어가다 보면 성곽이 우뚝하여 사실 업신여길 수 없다(未易鄙夷之)”⁴⁶⁾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권8 「人物」에서는 尹彦植에 대해서 “완연한 유학자의 모습이 있어서 그를 오랑캐로 대할 수가 없다(不可以蠻夷接之也)”⁴⁷⁾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들에는 고려가 중화의 영향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봐야겠지만, 오랑캐라는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식의 표현들에 비추어 볼 때 중화의 절대적 우월성이 상대화되는 지점들이자 ‘夷域’이 ‘異域’으로 비춰지는 장면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고려의 방언 표현을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⁴⁸⁾ 이 역시 ‘다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은 예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려도경』에서 고려인은 대체로 타자화 되고 대상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그 실존적인 면모나 그들과의 ‘인간적’이라 할 만한 관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 또는 상호관계를 어렵게나마 엿보이는 대목들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권12 「仗衛 二」 「神旗軍」에서는 신기군이 詔書를 맞이해 예를 행함에 있어 “산길이 험하고 높은데다 마침 큰 더위에 땀이 흘러 등을 흠뻑 적시니, 다른 장위군에 비하여 가장 수고가 많다”⁴⁹⁾며 인간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권24 「節仗」 ‘次騎兵’에서는 의장대의 하나인 龍虎軍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이 말을 타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다”⁵⁰⁾고 기록하고 있어 고려 군사의 자신감에 찬 모습을 엿보게 해주고 있다.

46) “入其境，城郭巋然，實未易鄙夷之也。” 조동원, 같은 책, 71-72쪽.

47) “宛然有儒者之風，不可以蠻夷接之也。” 조동원, 같은 책, 139쪽.

48) 예를 들어 권3 「城邑」 ‘國城’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正東에 있는 문은……定安이라 부른다. 옛 기록에는 須恤이라 하였는데 고려인들의 방언이다. (正東曰……曰安定，舊曰須恤，乃麗人方言也.)” 권31 「器皿 二」 ‘水釜’ 조에서도 물솥에 대해 “고려 방언으로 크고 작은 것 구분 없이 모두 요복야(侏僕射)라고 하였다(麗人方言，無大小，皆謂之侏僕射)”고 하고 있다. 조동원, 같은 책, 79, 378쪽.

49) “山路間關突兀，時方大暑，汗流浹背，比之他儀，最爲勞耳。” 조동원, 같은 책, 170쪽.

50) “馳驟甚亟，頗自矜耀。” 조동원, 같은 책, 301쪽.

권32 「器皿 三」 '茶俎' 부분의 경우, 사신의 숙소에서 시중드는 고려인들이 매일 세 차례씩 차를 대접한 후 탕을 내놓는데 “그것을 다 마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고, 혹시라도 다 마시지 못하면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억지로 그것을 다 마셨다”⁵¹⁾고 기록하고 있다. 수발을 드는 고려인들과 사신들 사이의 실제적인 모습의 일단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여기서 양자간의 관계는 절대적 지위의 차이를 넘어 상대적인 관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권21 「自隸」 '房子' 부분에서는 중국 사신들이 접대례를 마치고 館을 떠날 때 使館의 심부름꾼인 房子들이 몇 줄기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서 “대개 고려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정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비록 방자라도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⁵²⁾라고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이 두텁다고 평가한 데서 서술자의 우월감이 거듭 엿보이기는 하지만, 중국 사신들에 대한 고려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보더라도 서술자는 고려 또는 고려인에 대해 단순히 타자화, 대상화로 일관하지만은 않았으며 이따금 일종의 상대적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터이다.

다른 한 편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고려도경』의 글쓰기는 대체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의 면모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 시기 중국의 經史나 지리서 등 각종 전적에서 보이는 '외국'에 대한 서술에는 심한 과장이나 심지어 엽기적인 상상이 개입된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고려도경』의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한 내용이 매우 드물다. 『고려도경』에서는 각 권의 서론성 첫머리나 중국과의 관련 또는 비교 내용을 다룰 때는 서술자의 가치관이 개입된 '서사'로서 경향을 질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문물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강한 묘사 위주의 양상을 보인다고 개괄할 수 있다. 특히 기물에 대한 기록은 그야말로 실증적이라 할 만한 면모를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권30 「器皿 一」 '酒榼' 대목을 들 수 있다.

51) “每見使人飲盡必喜，或不能盡以爲慢己，必怏怏而去，故常勉強爲之啜也。” 조동원, 같은 책, 383-385쪽.

52) “大抵麗人之於中國，其情加厚，故雖房子，亦懷惓惓焉。” 조동원, 같은 책, 270-271쪽.

“술통〔酒榼〕은 대체로 휴대하고 다니는 용기이다. 윗부분(뚜껑)은 뒤집어진 연꽃 모양이며, 양쪽 귀에는 고리 사슬로 된 끈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도금하였다. 술을 권할 때에만 특별히 사용하는데 (여기에 담으면) 술의 색깔과 맛이 모두 빼어나다. 외관을 살펴보면 높이는 1자에 들레는 8치이고, 늘어뜨린 끈의 길이는 1자 2치이며 용량은 7되이다.”⁵³⁾

짧고 간결하지만 그 가운데 술통의 기능과 모양, 특징은 물론이고 그 정확한 크기와 용량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소한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 이렇게까지 살살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밀한 서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술 경향에 심한 과장이나 상상이 끼어들기 어려웠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中國과 같은 것들은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취하”고자 했다는 서문의 언급과도 관련해서, 넓게 보자면 이 같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글쓰기 경향 역시 ‘다름’에 주목하고자 한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려에서의 짧은 체류 기간과 행동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시간적, 물리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고려도경』의 서술자는 놀라울 만큼 주의 깊은 관찰력으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고려도경』의 한반도 관련 내용은 기존 正史나 지리서 등의 관련 기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로 인해 후대에 국내에서도 그 상당 부분이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귀한 정보로 널리 활용돼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려도경』은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다른 어떤 ‘외국’ 관련 기록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전통시기를 통틀어 가장 풍부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로 남았을 만큼 많은 정보를 자랑한다.

『고려도경』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고려에 관한 거의 모든 실제적인 정보들을 담으려는 태도로 기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궁이 사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른바 咨詢의 임무를 다하고자 했던 것과 더불어 고려 관련 정보에 대한 황제의 특별한 요구에 기인한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당시 송은

53) “酒榼蓋提挈之器也。上爲覆荷，兩耳有流連環提紐，以金間塗之。惟勸酒則特用，而酒色味皆勝。其制，高一尺，闊八寸，提環，長一尺二寸，量容七升。” 조동원, 같은 책, 373쪽.

불리한 국제정세로 인해 고려와의 외교관계가 오랜 기간 원활하지 못했던 탓에 관련 정보가 적어 새로운 실질적 정보의 수집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름'에 대한 관심은 고려에 대한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 차원의 필요성과도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세밀한 관찰을 통한 디테일한 기록은 뛰어난 화가로서 서궁 개인의 관찰력도 한몫 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 대목에서 논의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고려도경』의 내용 배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이 『고려도경』은 당시 일반적인 사행록처럼 시간과 여정의 순서에 따른 글쓰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門目的 분류 체계를 쓰고 있다. 총 28개 門의 분류를 수록된 순서대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권1 建國, 권2 世次, 권3 城邑, 권4 門闕, 권5-6 宮殿, 권7 冠服, 권8 人物, 권9-10 儀物, 권11-12 仗衛, 권13 兵器, 권14 旗幟, 권15 馬車, 권16 官府, 권17 祠宇, 권18 道教, 권19 民庶, 권20 婦人, 권21 皂隸, 권22-23 雜俗, 권24 節仗, 권25 受詔, 권26 燕禮, 권27 館舍, 권28-29 供張, 권30-32 器皿, 권33 舟楫, 권34-39 海道, 권40 同文

권두와 권미의 총론적 성격의 내용이나 「海道」 부분 등을 제외하면 그 배치 순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원칙을 찾기는 어렵다. 굳이 거칠게나마 그 내용의 배치를 개괄하자면 중앙 권력과 관련성이 많은 내용을 앞쪽에,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문물이나 풍속 관련 내용은 그 뒤에, 使節 관련 내용은 후반부에 배치하고 있는 구도를 보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역시 고려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백과사전처럼 늘어놓기 식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 배치는 고려의 유·무형의 소위 '物'에 대한 박물학적

54) 『고려도경』 권24 「節仗」 '次充代下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사절의 행차에는 고려인을 위로하고 살피라는 황제의 뜻을 모두 유념하였으므로 누구나 길을 떠나 異域 풍속을 살피려고 하였다. 하물며 陛辭하는 날 돈독하게 깨우쳐주시는 천자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니, 모든 사람이 감동하여 항해 중에 죽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도 않았다. (今使者之行也, 人人仰體聖上懷徠之意, 願爲執鞭, 以觀異域之俗. 又況陛辭之日, 面奉聖語丁寧宣諭, 人皆感泣, 而不以海洋之生死爲憂也.)" (조동원, 같은 책, 306쪽.) 이로써 당시 사절단의 마음가짐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관심을 일종의 類書의 형태로 분류,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한다. 이 같은 체제 또는 매체의 선택은 가깝게는 서궁 자신이 직접 참고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 『鷄林志』의 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⁵⁵⁾ 좀 더 멀게는 類書와 같은 일종의 박물학적 글쓰기 전통과 직간접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물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개별 대상들을 묘사하는 박물학적 글쓰기 전통은 전통시기 중국 지식계에 보편적이었던 박물학적 사유와 더불어 중국 역사상 면면히 이어져왔다. 『山海經』, 『博物志』, 『爾雅』 등을 위시한 박물서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한다. 漢대의 賦나 위진 시기의 지리박물체 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적 글쓰기에서도 사물들의 외형적 특징을 늘어놓기 식으로 배치하는 박물학적 전통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은 물론이다.⁵⁶⁾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닌 類書는 이러한 박물서의 대표적인 장르라 할 것인데, 실제로 북송대에는 대표적인 관찬 유서로 꼽히는 『太平御覽』을 비롯하여 각종 유서의 편찬과 활용이 성행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⁵⁷⁾ 이렇게 볼 때 『고려도경』의 박물학적 글쓰기는 이 같은 기존의 익숙한 서술체계와도 접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고용 텍스트로 정리함에 있어 황제를 비롯한 관료들 및 이후의 사신 등이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당시 보편적인 유서의 형태를 차용하여 門類별로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유서의 체제는 이후 얼마든지 門目을 가감할 수 있는 신축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 같은 체제의 채택은 이후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55) 서궁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은 崇寧 연간(1102-1106)에 王雲이 편찬한 『鷄林志』를 본 적이 있다. 원래 그 내용은 치밀하지 못하고 모습을 그린 책도 아니었지만, 최근에 사신으로 가면서 참고로 도움 받은 바가 상당히 많았다. (臣嘗觀崇寧中, 王雲所撰鷄林志, 始疏其說, 而未圖其形, 比者, 使行, 取以稽考爲補已多.)” (조동원, 같은 책, 44쪽) 『鷄林志』는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8門으로 분류하여 편찬된 것으로 전해진다.

56) 이상 박물학적 글쓰기에 관해서는 최수경, 「세계를 수집하다: “물(物)”에 대한 인식의 역사와 明代 출판물 속의 博物學」(『중국어문논총』 73집, 2016) 참고.

57) 유서는 송대에 士人들의 학교 교육 및 과거시험 준비에 중요한 참고서로 널리 쓰이면서 문화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溫志撥, 「宋代類書中的博物學世界」(『社會科學研究』, 2017. 1) 참고.

있었을 터이다. 물론 이 같은 체제의 선택은 앞서 언급했듯이 門目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를 담는 지방지의 대표적인 체제와도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⁵⁸⁾

푸코는 분류를 物의 동일성에 대한 다른 사고로 본 바 있다.⁵⁹⁾ 『고려도경』이 고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무원칙에 가깝게 늘어놓기 식으로 배치한 양상을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푸코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적 지식 체계라는 일종의 동일성에 의해 분류되고 배치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당시 그들에게 익숙한 인식 체계 및 가치 지향에 따라 고려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권두와 권미 부분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동일성의 틀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름’에 주목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상 결국 대화적, 또는 해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동일성에 갇힌 백과사전식 정보의 나열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이다. 고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기는 했으나 그 특수성 또는 상호성이 부각되고 그로써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낳는 데 까지 나아가기에는 인식의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 주목하고자 했던 취지 자체나 그 미세한 흔적들, 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기록 태도 등으로 볼 때, 상상과 왜곡으로 가득한 기존의 ‘외국’ 서사와 구별되는 송대적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고려도경』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이고 자의적인 텍스트일 뿐이라고 폄훼할 수만은 없다.

58) 『고려도경』은 類書 형태의 체제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행록, 지리서, 지방지, 사서, 일기, 잡록 등의 글쓰기 방식이 혼합된 복합적 성격의 텍스트이다. 따라서 『고려도경』은 단순히 ‘사행록’으로만 규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 『四庫全書總目』 『類書類』 ‘小序’에서는 유서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유서는 四部の 특징을 두루 지니고 있어 經도 아니고 史도, 子도, 集도 아니어서 四部 가운데 어디에도 귀속시킬 수 없다. (類事之書, 兼收四部, 而非經非史非子非集, 四部之內, 乃無類可歸.)”고 말한 바 있다. 『고려도경』에 딱 들어맞는 언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서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고되는 바가 없지 않다.

59)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민음사, 2012) 제5장 및 潘晟, 「中國古代地理學的目錄學考察(一)」(『中國歷史地理論叢』, 2006. 第一期) 81쪽 참고.

5. ‘고려’를 통한 ‘문명천하’의 재구성: 결론을 대신하여

『고려도경』은 그 글쓰기를 둘러싼 컨텍스트로 인해 근본적으로 ‘중국’의 아전인 수적 텍스트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결론을 대신해서 고려는 결국 『고려도경』을 통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재현되고 활용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되짚어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요점부터 말하자면, 『고려도경』은 결국 북송 지배층의 시각에서 고려를 재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문명천하’라 할 텍스트 속 이상을 이루고자 했으며, 이것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1 및 권40 부분 등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도경』은 유독 ‘고려’는 다른 오랑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려’가 위계적인 화이관념에 기초한 ‘문명천하’를 유지하고 재구하는 데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 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권1 「건국」에서는 한반도 지역 역사의 처음을箕子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부터 “고려는箕子가 들어오면서부터 덕을 베풀어 제후에 책봉되었는데”⁶⁰⁾라고 하고 있고, 뒤이어 “고려의 선조는周 武王이 조선 제후에 책봉한 기자인데”⁶¹⁾라고 못 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3 「城邑」, 권7 「冠服」, 권9 「儀物一」, 권13 「兵器」, 권30 「器皿一」, 권40 「同文」 ‘儒學’ 및 ‘樂律’ 부분을 포함해 9번에 걸쳐 기자의 영향을 거듭 언급하면서 하나의 클리셰로 이용하고 있다.⁶²⁾ 곧 기자를 통한 교화와 영향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중국과 한반도 지역의 역사적 관계 및 계보를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단순화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권40 ‘同文’은 그 제목에서부터 고려의 주류 문화와 제도가 송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또 그 첫머리에서 정사와 유학, 음악, 도량형

60) “獨高麗，自箕子之封，以德取侯。” 조동원, 같은 책, 47쪽.

61) “高麗之先，蓋周武王封箕子胥餘於朝鮮。” 조동원, 같은 책, 50쪽.

62) 기자조선 설의 형성과 계승 및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오현수, 「기자(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 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79권, 2012) 및 김효민, 같은 글, 제4절 참고.

등 네 가지 핵심 제도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대체로 하나의 근본 원칙으로써 못 움직임을 바로 잡는 것이니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와 같아야 한다. 우러러보건대 우리 송이 크게 통일하여 만방에 임하므로 중국이 앞서고 오랑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원칙(至一)이란 중국 중심의 천하와 대일통을 추구하는 동일성의 틀에 다름 아니다.⁶³⁾ 기사를 두드러지게 내세운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의 영향을 강조한 것이라면, ‘동문’ 부분은 북송 시기의 당대적 관계와 질서로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를 ‘중국’ 곧 송 중심의 문명 체계 내에 편입시켜 재배치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당대적 시각에서 재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고려를 북송이 꿈꾸던 중국적 세계질서를 입증하는 본보기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동일성의 틀 안에서 고려에 관한 모든 정보는 그 안에 갇힌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당시 주변 국제 질서 가운데 열세를 면치 못했던 북송의 조급함과 지배계층의 일원으로서 서궁 자신의 고도의 충성심과 책임감, 천하질서를 텍스트 내에서도라도 재구하고자 했던 강한 열망 등이 결국 고려를 온전히 재현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국적 천하질서의 상상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규는 “서궁이 기자 조선 이래로 한중간에 책봉-조공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강조하였듯이, 기자 이래로 한중간에 문화 교류가 계속되어 한중 양국이 동질적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누누이 강조한 것 역시, 북송과 고려의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던 선화 사절단의 사명에 논리적 당위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⁴⁾고 지적한 바 있다. 『고려도경』의 글쓰기가 놓여 있던 본질적 맥락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는 지적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당대의 시대적 현실과 상황적 요구로 인해 『고려도경』은 고려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천

63) “蓋以至一，而正群動，其道當如此。仰惟國家大一統，以臨萬邦，華夏蠻貉，罔不率俾。” 조동원, 같은 책, 465쪽.

64) 김한규, 『선화봉사고려도경』 해제, 46쪽.

하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배치했다고 할 것이다. '외국'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으로서 성격이 현저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통시기 중화가 계승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고려도경』은 중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예기』 등 경전으로부터 正史, 지도, 지리서, 제도사, 사행록, 類書 등으로의 다양한 글쓰기 분화 과정과 더불어 화이관에 기초한 중국적 천하관념의 확대재생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고려와 송이 조공-책봉관계도 아닌 시점에서 이처럼 글쓰기와 텍스트를 통해 중국적 천하관념이 또 다시 송의 이름으로 담론화 되고, 이렇게 재구성된 고려의 이미지가 일찍이 한반도에도 수용되었다는 점⁶⁵⁾을 감안하면, 텍스트를 통한 이 같은 중국적 천하질서 상상은 한낱 자의적 글쓰기나 레토릭에 불과했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의미'와 영향을 낳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고려도경』은 기존 지식체계와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가운데 송대적 현실 상황과 시대정신 등이 습합되어 이루어진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寫實과 레토릭이 직조되고, 夷域으로서 인식과 異域으로서 인식이 중첩되어 중국적 천하의 일부이자 오랑캐 지역으로서와 외국으로서의 중층적 재현 양상이 드러나는 글쓰기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그 중층성은 결국 동일성의 기획에 묻히면서 결과적으로 고려는 문명천하를 꿈꾸던 '중국'의 시각을 통해 텍스트 속에서 담론적으로 재구성되고, 역사적 현실이나 실제와의 부합 여부는 무관하게 텍스트 속 문명천하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로 활용된다. 통일왕조로서 가장 취약했던 시기이자 불과 몇 년 후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화이관과 천하주의는 그렇게 다시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도경』은 전통시기 '중국'이 텍스트를 통해 구성되고 상호텍스트적 관계로, 또 관습적으로 계승되어온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65) 『고려도경』이 재구성한 '고려' 및 고려-송 관계의 후대 전승 및 영향에 관해서는 김보경, 같은 글, 제4장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知不足齋本 『고려도경』(1793)을 펴낸 鮑廷博(1728-1814)의 발문에 따르면 『고려도경』의 고려본도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동원, 같은 책, 「해제」 제2절 판본 관련 내용 참고) 현전하지는 않지만 『고려도경』은 중국에서뿐 아니라 고려(또는 조선)에서도 간행되어 전파되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參考文獻〉

- 김한규 옮김, 『사조선록역주1』, 소명출판, 2012.
- 조동원 등 옮김, 『고려도경』, 황소자리, 2013.
- 한국고전번역원 옮김, 『고려도경』, 서해문집, 2015.
- 葛兆光 저, 이원석 역, 『이 중국에 거하라: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구』, 글항아리, 2013.
- 김정희 외,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사기부터 명사까지』, 역사공간, 2016.
- 고병익, 「중국정사의 외국열전 - 조선전을 중심으로」, 『동북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黃燕生, 「宋代의 地方志」, 『史學史研究』, 1984년 第2期.
- 박지훈, 「北宋代 華夷論의 性格」, 『梨花史學研究』 29, 2002.
- 이석현, 「宋 高麗의 外交交渉과 認識, 對應 - 北宋末 南宋初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9호, 2005.
- 潘 晟, 「宋代地理學的觀念, 體系與知識興趣」, 北京大學城市與環境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6.
- 김보경, 「『고려도경』과 고려의 문화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2011. 6.
- 전영준, 「11~12세기 전후 麗-宋 양국의 문화인식과 『高麗圖經』」,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0호, 2011.
- 장동익, 「宋·元版의 資料에 收錄되어 있는 高麗王朝 關聯記事의 研究」, 『역사교육논집』 제46호, 2011.
- 오현수, 「기자(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권, 2012.
- 王 皓, 「關於『宣和奉使高麗圖經』創作的幾個問題」, 『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9卷 第1期, 2012. 1.
- 王 皓, 「宋代外交行記與語錄研究」, 四川師範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4.
- 陳大遠, 「宋代出使文學研究」, 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14. 6.
- 馬文婷, 「『宣和奉使高麗圖經』研究綜述」, 『天水師範學院學報』 第35卷 第5期, 2015. 9.
- 廖秀倩, 「『博物志』博物書寫研究」, 臺灣 國立政治大學 中文係 碩士學位論文, 2015.
- 陳大遠, 「簡析宋代出使行程錄」, 『綏化學院學報』 第36卷 第11期, 2016. 11.
- 김보광, 「12세기 초 송의 책봉 제의와 고려의 대응」, 『동국사학』 제60권, 2016.
- 최수경, 「物의 세계: 南宋 지리서가 구성한 '海外'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제87집, 2018.

〈Abstract〉

Between Barbarian Land and Strange Land:
Context and Features of the Writing of *Xuanhuafengshi Gaolitujiing*
(宣和奉使高麗圖經)

Kim, Hyo-Min

For this thesis, a sort of 're-writing' has been tried in order to address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Xuanhuafengshi Gaolitujiing*(宣和奉使高麗圖經), which was a record of official visit in Goryeo by Xu Jing (徐兢, 1091-1153) around the end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of China, as well as overall dispositions and features of its writing. In *Gaolitujiing*, Goryeo is re-constructed and arr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ing clas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Chinese World Order' in its text and it stipulates the nature of its text. *Gaolitujiing* could be considered the outcome of integration of the reality and spirit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while re-producing of the previous knowledge system and values of China. Due to these features, facts about Goryeo and rhetoric of Chinese perspective are weaved together, in turn creating a dualistic perspective about Goryeo: one viewing Goryeo as barbarian land and another as strange land. However, since this dualistic perspective is confined in the frame of oneness, Goryeo gets re-constructed in the text with the China-oriented perspective, dreaming of World Order achieved by China, and used as an important existence, constructing the world in the text, regardless whether this point of view complies with reality or not. That's how Sinocentrism and Chinese World Order were re-written at the time of the most vulnerable as the unified dynasty and only a few years before its fall. In this regard, *Gaolitujiing* clearly reveals how China, of the tradition time, has been constructed in text and inherited in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 and conventional manner.

Key words: *Xuanhuafengshi Gaolitujiing*(宣和奉使高麗圖經), Xu Jing(徐兢), Hua Yi(華夷), Dong Yi(東夷), 'Chinese World Order', writing context

이 논문은 2019년 4월 24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